

교회:

부서: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청소년 공과

제 1 권



KAFC 출판부

주제: 최초의 사건들(첫 번째)

공과	청소년 공과
제 1 공과	창조
제 2 공과	첫 번째 사람
제 3 공과	메이슨의 깜짝 생일파티
제 4 공과	어디에 있었니?
제 5 공과	첫 번째 고층 건물
제 6 공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제 7 공과	불타는 떨기나무
제 8 공과	하나님의 말씀
제 9 공과	하나님을 섬김
제 10 공과	순종과 겸손의 모습
제 11 공과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예물
제 12 공과	먼저 감사하기
제 13 공과	1 분기 복습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KAFC(한국 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사 및 수정, 배포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서

성경에서 시작과 관련된 사건들을 탐구하면 많은 교훈이 담긴 다양한 예시를 찾는 일은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사건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누가 이끈 것인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번 분기에 '시작'이라는 주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처음 두 공과는 창조와 첫 인간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 두 공과는 원죄와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 계획에 대해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상징하는 거대한 탑의 건설과 그 뒤에 숨은 의미를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히브리인 아브라함, 최초의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처음 제사장 아론, 그리고 최초의 왕 사울 등 네 명의 인물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처음 율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의 각 공과는 성경 속 처음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건들이 창세 이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에 지니는 중차대한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번 분기에 진행될 교육 과정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제 1 공과 창조

성경본문: 창세기 1:1-25

요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요한복음 1:3)

교과서를 챙기고 과학실을 나가는 베일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과학 선생님은 과학 시간에 지구의 탄생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이 이론을 믿는 것일까? 선생님은 정말로 지구가 한때 녹아서 점차 식어가는 덩어리였다고 생각할까? 선생님은 동물이 물속의 작은 물질 조각에서 진화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 작은 물질 조각은 어디에서 왔다는 거야? 인간이 원숭이 같은 생물에서 점차 진화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베일리는 오후 내내 이 질문에 대해 마음을 떨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곧장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베일리는 침대에 걸터앉은 채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베일리는 창세기 1 장 1 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일리는 우주에서 기이한 폭발이 일어났고 수백만 년 후에 그 덩어리가 지구라고 불리는 덩어리가 되었다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였습니다.

베일리는 2 절을 읽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베일리는 지난 번 청소년 수련회 때를 떠올렸습니다. 수련회를 참석할 때 베일리의 마음은 어둠이 깔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수련회 가운데 계신 것을 느꼈고, 그날 예배 후 기도 시간에 베일리는 자신의 삶을 바꿔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베일리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베일리는 3 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베일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생겨난 것이 믿어졌습니다. 빛이 생긴 것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가스 혼합도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를 설계하고 존재하도록 명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베일리는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계획에 하늘이 있기를 원하셨고,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을 자라게 하시고, 나물은 씨를 맺게 하시며, 과일나무는 열매 속에 씨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는 나무가 씨앗을 생산하여 더 많은 나무가 자라도록

미리 계획했습니다. ‘설마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니,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질서로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베일리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별과 달과 해를 만드셨다고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명체를 통해 낮과 밤을 나누시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사 땅을 비추고 따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베일리는 해변에서 햇빛 아래 누워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즐길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바다 표면 근처에 살도록 만들어졌고, 어떤 물고기는 바닥 근처에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상어나 참치 같은 큰 물고기를 만들어 바다에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담수호와 강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연어와 같은 물고기들은 민물과 바닷물 모두 살게 하셨습니다. 산에 사는 새가 있었고 정글에 사는 새가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생물체들을 사람이 설명할 수 있을까?’ 베일리는 생각했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에 가축과 기는 것과 모든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베일리는 소가 말을 낳고, 고양이가 강아지를 낳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 낄낄 웃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생물이 그 종류대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와 말과 강아지가 끊임없이 변화하거나 다른 종류의 동물로 진화하지 않았습다.

베일리는 창세기 1 장 25 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확고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녀도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창조에 관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질서정연했고, 확실히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베일리는 성경을 덮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Lesson 1 Activity

IT WAS VERY Good!

Our Bible tells us that,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 . . and, behold, it was very good.”

Some of the things God created are listed below, but you'll need help to read them. Next to each set of unfinished words are three groups of letters. Choose the group that will fit into the starred space and become the ending of the first word and the beginning of the second word. Write the words on the lines provided. The first one has been done for you.

<i>CAM * EPHANT - AP EL CAR</i>	1. Camel Elephant
<i>P * GLE - EA SU TE</i>	2. _____
<i>ZEB * M - SA ED RA</i>	3. _____
<i>CR * L - OW AN OB</i>	4. _____
<i>FI * EEP - IH SH UP</i>	5. _____
<i>APP * AF - KO LE AL</i>	6. _____
<i>VIO * TUCE - LET OPE CAM</i>	7. _____
<i>TURT * OPARD - OP AN LE</i>	8. _____
<i>B * S - APE EAR REA</i>	9. _____

The lines below are numbered to represent three days of the Creation. Take the words from the list above and write them on the line over the day they were each created. Can you do this without looking in your Bible?

_____	_____	_____
<i>Day 3</i>	<i>Day 5</i>	<i>Day 6</i>

The First Day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 장 1 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왼쪽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오른쪽 <하나님의 창조> 날짜에 맞게 적어보세요.

<보기>

하늘, 해, 사과나무, 코끼리, 앵무새, 빛,
 달, 땅, 고양이, 풀, 고래, 별, 토끼,
 물고기, 독수리, 바다, 꽃, 오이, 지렁이



<하나님의 창조>

*첫째날: _____

*둘째날: _____

*셋째날: _____

*넷째날: _____

*다섯째날: _____

*여섯째날: _____

아래 네모 칸에 오늘 요절 말씀을 적어보세요.

제 2 공과 첫 번째 사람

성경본문: 창세기 1:26-31 ; 2:7, 18-23

요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27)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분 또는 몇 시간을 되돌릴 수 있기를 원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돌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지켜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6 일 동안 창조하신 곳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기,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푸른 풀밭에서 사슴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사슴의 털은 매끄럽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의 곁에는 토끼 한 마리가 한가로이 뛰어다닙니다. 우리는 나무 아래에 서 있고, 우리 주위에는 온갖 색깔의 꽃이 피어있습니다..

우리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몸을 구부리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그분은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몸을 굽혀 흙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눈을 더 크게 뜹니다. 모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것을 보기 위해 잠깐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남자의 형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직 어떤 부분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숨죽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남자는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팔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입니다. 그는 앉아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습니다.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흥미로워 그곳을 떠날 줄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동물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지 보기 위해 동물들을 아담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에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누워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매료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담의 옆구리를 고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갈비뼈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는 것을 면밀히 지켜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노련하여 모든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아담은 이 새로운 창조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담은 눈을 뜨고 그녀를 봅니다. 아담은 벌떡 일어나 기쁨의 함성을 외치며 말했습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Lesson 2 Activity

**ONE OF A
KIND!**

God gave man something that none of His other creation has — a soul! Below is a verse from our text that tells us how God did this. Take the words listed at the bottom of the page and place them where they fit in the verse.

And the Lord God

of the

and

into 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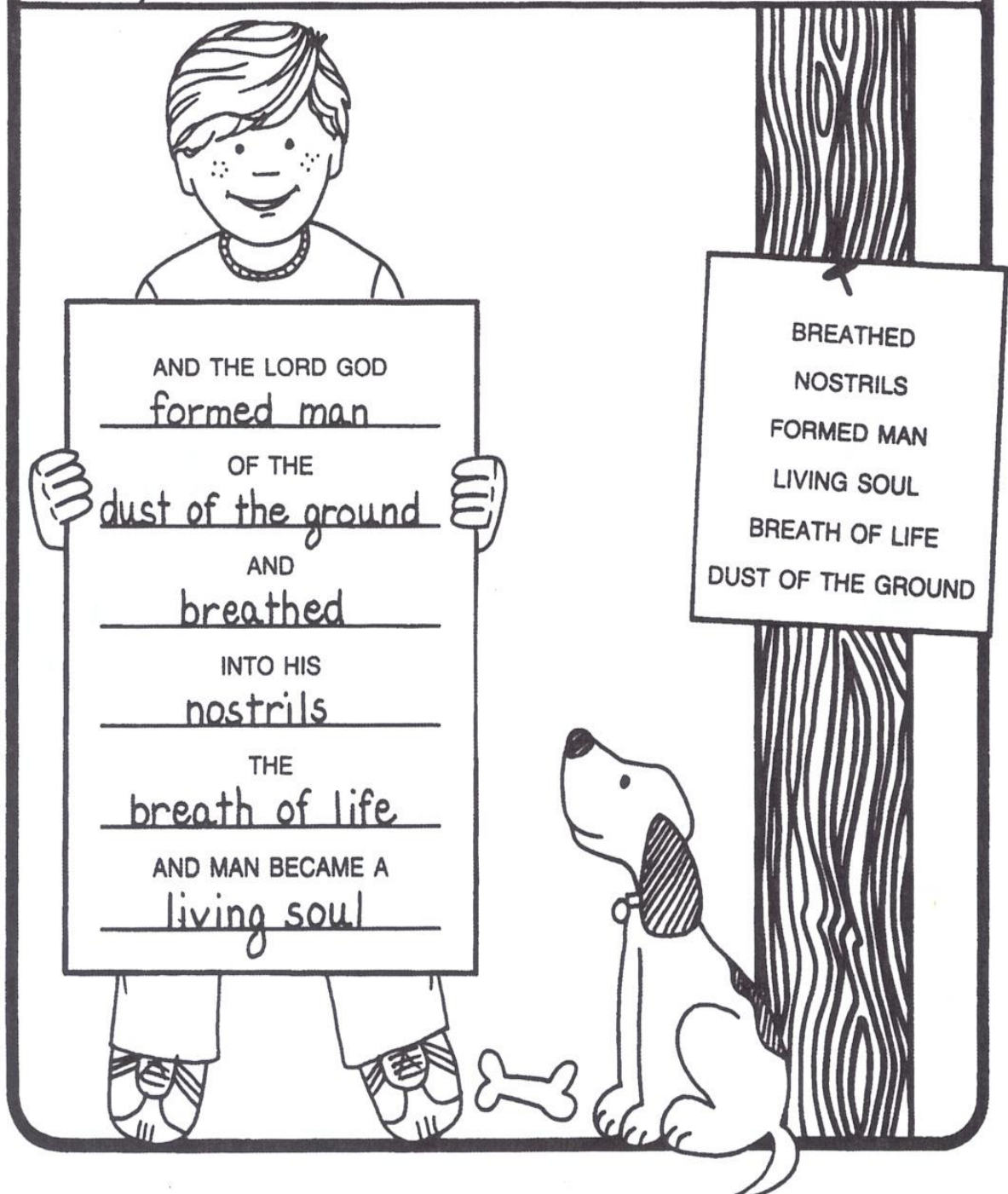
the

and man became a

*breathed | nostrils | formed man |
living soul | breath of life | dust of the
ground*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 장 7 절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제 3 공과 메이슨의 깜짝 생일파티

성경본문: 창세기 2:15-17 ; 3:1-19

요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베드로후서 2:9)

메이슨의 어머니는 메이슨을 위해 초코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메이슨의 이모와 이모부가 저녁 식사 시간에 와서 메이슨에게 깜짝 생일파티를 해 주려고 메이슨의 집에 올 계획입니다. 그들은 메이슨이 집에 도착할 시간에 맞추어 왔다가 한 시간 뒤에 가려고 했습니다. 메이슨의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는 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메이슨의 어머니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메이슨이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집에 가기 전에 베켓 집에 잠깐 가도 될까요? 베켓이 농구공을 새로 샀는데, 농구 시합 한번 하자고 하네요. 오늘은 학교 숙제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내 생일이니깐 친구랑 농구하고 집에 갈 거예요.”

메이슨의 어머니가 시계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메이슨, 우리는 30 분 뒤에 저녁을 먹을 계획이란다. 오늘 학교에서 밴드 동아리 활동이 있어서 보통 때보다 늦게 마쳤잖니. 저녁 식사 시간 전에 집에 오려면 지금 바로 집으로 와야 하는데.”

메이슨은 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친구 베켓에게 실망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베켓, 미안해. 나는 지금 집으로 가야겠는걸. 어머니께서 지금 집으로 오라고 하시네.”

베켓이 메이슨을 재촉했습니다. “메이슨, 우리는 농구 한 게임만 할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 다른 친구 두 명도 같이 갈 건데, 네가 빠지면 짝이 안 맞잖아. 조금만 하자.”

메이슨은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끝낸 후 1 시간 30 분이 지나서 집에 왔습니다. 메이슨이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메이슨의 어머니께서는 화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메이슨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집에 오는 길에 이모부 차가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 이모랑 이모부가 우리 집에 왔었어.” 메이슨의 어머니께서 슬픈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생일 파티에 주인공이 없어서 가셨다. 이모랑 이모부는 시간이 많지 않았단다.”

메이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래, 메이슨. 오늘 밤 너를 위해 깜짝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지, 그래서 엄마는너에게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어. 그런데 너는 오지 않았어. 우리는 최대한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지만 이모와 이모부는 떠나야 했단다.

너는 엄마에게 순종하는 대신 너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구나. 너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메이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메이슨이 겪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유혹을 저항할지 아니면 굴복하여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에 직면한 다른 두 사람에 대해 알려 줍니다. 이 땅에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이브는 아름다운 에덴동산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나무의 열매만 빼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정해진 규칙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녀가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의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의 말은 하와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금지된 열매를 한 입 먹고 나서 아담에게 그것을 주었고, 아담도 그녀를 따랐습니다.

첫 번째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는 사탄이 하와에게 금지된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유혹에 굴복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파괴하고 싶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신이 말하는 대로 행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그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메이슨은 유혹에 굴복하여 어머니에게 불순종했습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유혹을 가지고 올 때 당신은 그 사탄을 대적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Lesson 3 Activity

USING GOD'S STRENGTH!

The devil tries to tempt everybody. But God gives you strength so you don't have to do what the devil says. Adam and Eve didn't use God's strength. The answers to this crossword puzzle can help you remember how sin first began. The numbers at the end of each clue are the chapter and verse to find the answer. All the verses are in the Book of Genesis.



ACROSS

3. Eve desired to be _____. (3:6)
7. What was more subtle than any beast of the field? (3:1)
8. God told Eve He would greatly _____ her sorrow in childbearing. (3:16)
9. Adam's punishment was having to work the ground by the _____ of his face. (3:19)

DOWN

1. Of what tree did God forbid Adam to eat? (2:17)
2. Who took the first bite of the fruit? (3:6)
4. What did God tell Adam and Eve they were formed from and would return to? (3:19)
5. God cursed the serpent and said that it would eat dust and go on its _____. (3:14)
6. God said the woman's seed would _____ the serpent's head. (3:15)

The First Sin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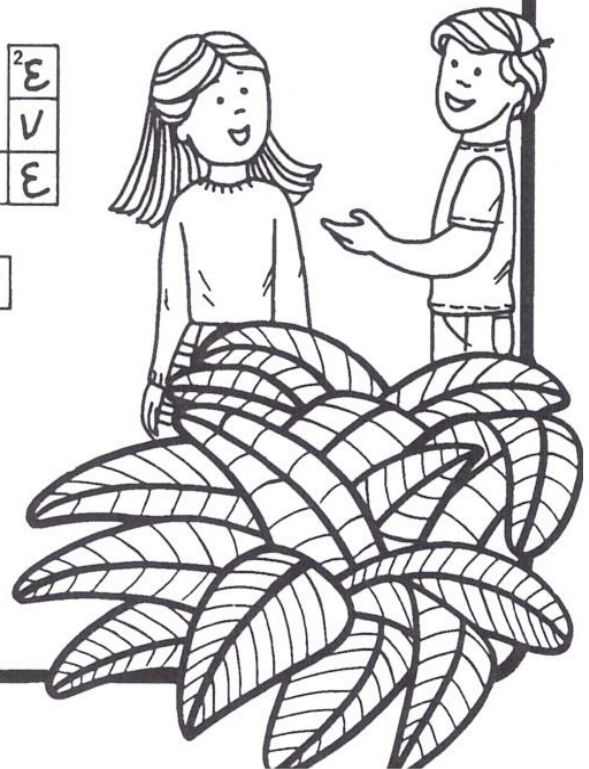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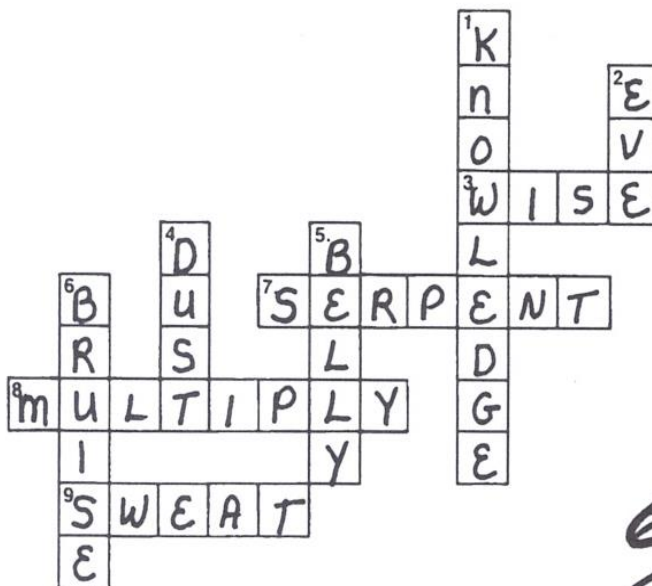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퀴즈를 풀면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KJV) 말씀을 참고하세요.

<세로>

1.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2:17)
2. 누가 열매를 처음 먹었나요?(3:6)
4.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나요?(3:19)
5. 하나님은 뱀에게 무엇으로 다니게 된다고 하셨나요?(3:14)
6. 하나님은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셨나요?(3:15)

<가로>

3. 하와는 어떻게 되고자 했을까요?(3:6)
7.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3:1)
8. 하나님은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나요?(3:16)
9. 하나님은 아담에게 얼굴에 무엇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고 하셨나요?(3:19)



제 4 공과 어디에 있었니?

성경본문: 창세기 6:5-22 ; 7:1-24

요절: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잠언 11:21)

엠마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으면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방으로 간다면 엄마는 모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엠마가 조용히 방으로 걸어가자마자 부엌에서 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엠마, 오늘 많이 늦었구나! 학교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니?”

엠마가 변명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 네, 금요일에 역사 시험이 있는데, 역사 선생님께 물어 볼 것이 있어서 교무실에 갔었어요. 선생님이 시험 대비를 위해 유인물을 나누어 주셨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엠마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학교가 끝났을 텐데, 네가 집에 안 와서 걱정했단다. 30분 뒤에 저녁 먹을 거야.” 엠마의 어머니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엠마는 침대에 누워 라디오를 켜습니다. 하지만 엠마는 양심의 소리를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 진실을 말해야 해. 아니야, 그냥 넘어가도 돼.’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생각에 잠겨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엠마는 몇 분 후에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엠마, 커피숍 주인이 전화가 왔네. 네가 친구들이랑 커피숍에 갔었는데, 역사책을 그곳에 놔두고 갔다고 하는구나.” 엠마의 어머니가 상기된 얼굴로 엠마에게 말했습니다. “엠마, 엄마와 아빠는 네가 방과 후에 허락 없이 다른 곳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너는 교무실에 가서 역사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엠마는 화를 내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 커피숍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PC 방도 가요.”

엠마의 어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 안 되겠구나. 일주일 동안 활동이 제한된다는 것을 기억하렴.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할 거야.”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엠마가 자기 방에 갔을 때 다른 일이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엠마는 침대에 누워 라디오를 켜습니다. 하지만 엠마는 양심의 소리를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 진실을 말해야 해.’ 엠마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들과 커피숍에 간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엠마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행동으로 부모님을 슬프게 했지만, 하나님께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불순종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한테 내가 한 일을 말하고 엄마에게도 용서해달라고 말할게요.”

그때,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가 엠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엠마, 커피숍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 엠마의 어머니는 엠마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엠마! 엠마!”

엠마는 일어서서 바닥을 비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교무실에 가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커피숍에 갔어요. 저는 엄마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엠마의 어머니는 엠마를 부드럽게 안아주셨습니다. “네가 거짓말을 한 것이 슬프지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에게도 용서를 구하니 엄마는 괜찮단다.”

엠마 이야기의 두 번째 결말은 처음 결말과 정말 다릅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잘못에 대해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래전에 인간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땅을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한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홍수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죄와 사악함을 참을 수 없으셨으며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읽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구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임할 형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함 받아 천국을 얻을 것입니까?

Lesson 4 Activity

**A WAY OF A
ESCAPE!**

WHY was God going to destroy the earth and the people in it? (6:5)

WHY did God save Noah and his family? (6:9)

How many people were saved in the ark? (7:13)

WHAT kind of wood was used in making the ark? (6:14)

How many levels did the ark have? (6:16)

How many doors and windows did the ark have? (6:16)

How long was Noah in
the ark before it be-
gan to rain? (7:10)

WHO closed the door of
the ark? (7:16)

How long the did the
waters last upon the
earth? (7:24)

WHAT two birds were
sent out from the
ark? (8:7-8)

Sin will always bring punishment, but God has made a way for us to escape His punishment. He sent Jesus. God has always provided a way of escape for those who love Him. Over four thousand years ago He made a way for Noah to escape. Answer the questions above to find out why and how. The numbers at the end of each question are the chapters and verses where the answers can be found. They are all from the Book of Genesis.

구원의 길

죄에 대한 형벌은 꼭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홍수심판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참조하여 아래 질문에 답을 찾아보세요.

1.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나요?(6:5)	They were filled with violence
2.	하나님은 왜 노아를 구원하셨나요?(6:9)	He was a just man and walked with God
3.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명이었나요?(7:13)	Eight
4.	방주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나요?(6:14)	Gopher wood
5.	방주는 몇 층으로 만들어졌나요?(6:16)	Three
6.	방주에는 몇 개의 문과 몇 개의 창문이 있었나요?(6:16)	One door — One window
7.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 며칠 뒤에 비가 내렸나요?(7:10)	Seven days
8.	누가 방주의 문을 닫았나요?(7:16)	The Lord
9.	물이 며칠 동안 땅을 덮고 있었나요?(7:24)	150 days
10.	노아가 어떤 새들을 방주에서 내보내었나요?(8:7-8)	A raven and a dove

제 5 공과 첫 번째 고층 건물

성경본문: 창세기 11:1-9 ; 고린도전서 3:9-15

요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18)

고층 빌딩은 하늘 높이 솟아오른 인상적인 건물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뉴욕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입니다. 104 층 높이입니다! 이렇게 높은 구조물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 곳에 흩어졌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 시날 평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자신들을 위해 높은 탑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될 것이고, 지구상의 여러 곳으로 흩어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곧 그들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토를 만들고 벽돌을 구웠습니다. 일부는 모르타르에 사용할 재료를 모으고, 다른 일부는 벽돌을 벽돌공에게 운반했습니다. 최초의 고층 빌딩이 세워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벽돌공이 벽돌을 더 요구하자 옆에 있던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모르타르를 원했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짓, 발짓,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탑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소유물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규칙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웬과 카터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는 길이었습니 다. 오웬은 규칙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생각 과 방법대로 행동하는 일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들이 자전거 도로로 가다가 오웬이 카터에게 이야기했습니 다. “카터, 학교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 그 길로 가면 학교에 10 분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어. 날 따라와.” 카 터가 오웬을 따라가는 길의 표지판은 자동차 일방통행 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터가 오웬에게 소리쳤습니 다. “오웬, 이 길은 자동차 일방통행 길이야. 우리는 자전거 도로로 가야 해.”

오웬이 대답했습니 다. “나도 알아. 그렇지만, 이 길로 가면 학교에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는걸. 우리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갑자기 트럭이 그들 오른쪽에서 나왔습니 다. 그들은 자전거 방향을 틀었고, 트럭 운전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 다. 그들은 트럭에 부딪힐 뻔했습니 다.

그들은 큰 한숨을 몰아 쉬었습니 다. 카터가 말했습니 다. “오웬, 우리 정말 큰일날뻔했어. 트럭에 부딪힐 뻔 했다고, 나는 자전거 도로로 돌아갈래.”

오웬이 소리쳤습니 다. “트럭 운전사가 우리를 잘 안 봐서 그렇지. 운전사가 운전을 잘못된 거야.”

카터가 말했습니 다. “아니야. 우리는 자동차 일방통행 길이 아니라 자전거 도로로 가야 해. 나는 자전거 도 도로 갈래.” 카터는 길을 돌아 자전거도로로 갔지만, 오웬은 자동차 일방통행 길로 계속 갔습니 다. 카터는 다 행히 학교에 지각하지 않고 도착했습니 다.

한 시간 뒤쯤, 교장 선생님이 카터 교실에 오셔서 카터를 부르셨습니 다. “카터야. 오늘 아침에 오웬을 보았 니? 오웬이 지금 응급실에 있다는구나. 경찰이 널 찾는데. 오웬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이 CCTV 에 찍혔다고 하는구나.”

카터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 다. ‘오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큰 사고일까? 내가 오웬과 같이 계속 갔었다면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을 텐데.’

오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Lesson 5 Activity

**A LETTER OF
HOPE!**

Dear People of Babel,

Sincerely,

Pretend you lived long ago when the people decided to build the tower of Babel. Write a letter telling them what you think of the idea of building the tower. Let them know the true and only way they can be happy.

희망의 편지

만약 여러분이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편지로 써보세요.



Dear People of Babel,

Sincerely,

제 6 공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성경본문: 창세기 12:1-3 ; 17:1-8

요절: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세기 15:1)

여름 하늘 수십억 개의 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세어 본 적이 있습니까?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 반짝이는 해변을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에 반짝이는 모래알을 셀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그의 자손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히브리서 11:12)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는 첫 번째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홍수 이후 400 년 뒤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는 데라와 데라의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와 양을 기르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해, 달, 별, 강, 바다, 동물들을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우르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도시에 달의 신 우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 데라의 아들 아브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아브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름으로 인해 놀림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들과 다른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환경을 따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린도후서 6:17) 아브람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을 떠나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은 곳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자신의 소유를 모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 땅을 아브람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람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아브람의 자손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브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람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백 년 전 그 당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범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

Lesson 6 Activity

**BELIEVE AND BE
BLESSED!**



**Abraham
was blessed
because he
believed and
followed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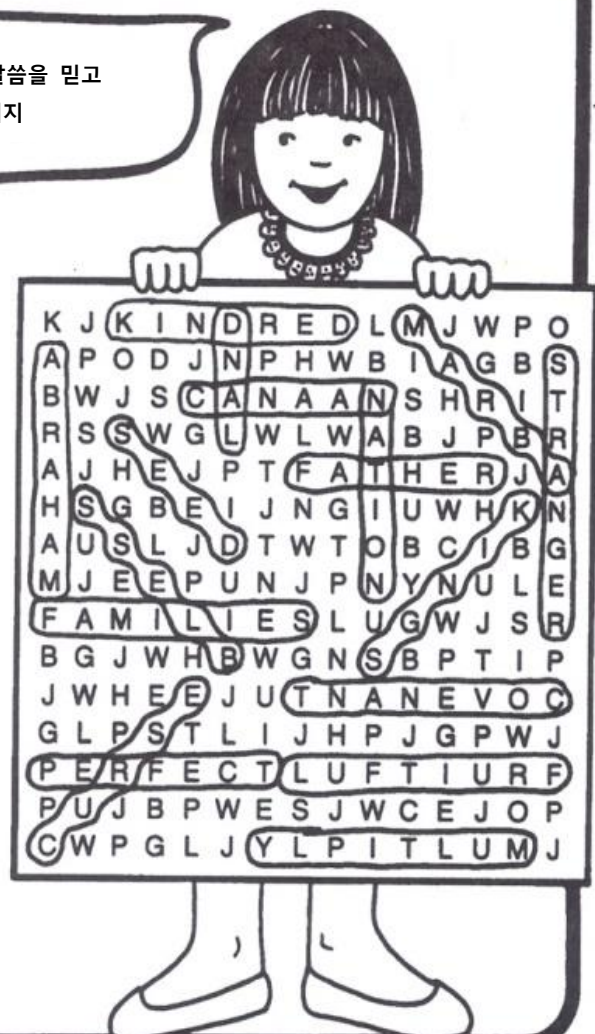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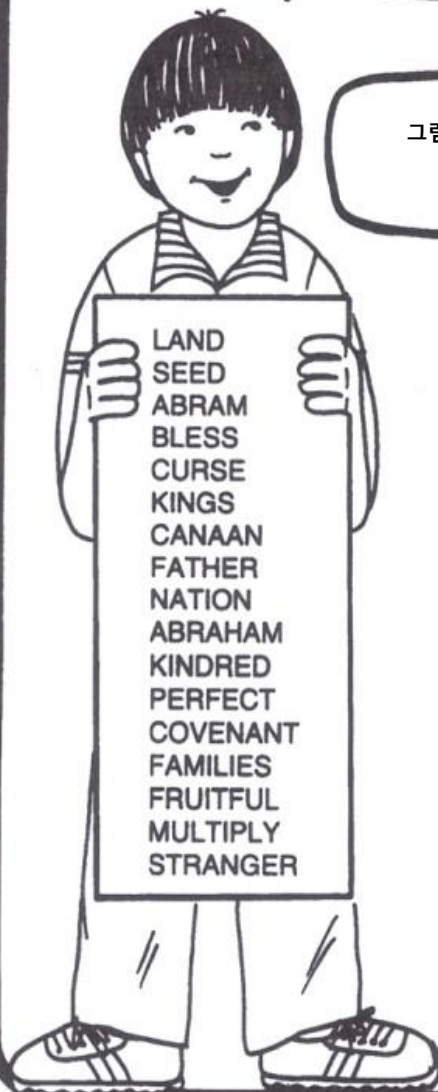
**Find the words listed above in the word-
find. Remember that if we believe and
follow God we, too, will be blessed.**

믿음과 축복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왼쪽 아래 단어를 오른쪽 글자 판에서 찾아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지



제 7 공과 불타는 떨기나무

성경본문: 출애굽기 3:1-15 ; 이사야 43:1-2

요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20)

양을 치는 목자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나서 겹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향해 양 떼를 옮기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잠자는 동물들을 살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동물들 옆으로 무엇인가 보였습니다. 떨기나무 덤불에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이 건조한 평원에는 양들이 먹을 풀이 많지 않았습니다. 목초지를 태울 수 있는 불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세히 알아보기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상했습니다! 불이 났지만,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라서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이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 낸 후, 너희들이 이 산 위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 모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오시겠다고?’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인지 물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따라

을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간다고 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많은 이적으로 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품 안에서 손을 꺼내자, 손이 나병으로 뒤덮였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양을 이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서 들렸던 것처럼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민족을 미지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당신이 무엇을 구하든지 당신과 함께 계시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Lesson 7 Activity

A"MAZE"ING MOSES!

The Book of Exodus tells the story of Moses. In the maze below, follow the life of Moses. See how he answers God's call. God was with him all the way. Compare this to God's special plan for you. Remember God will always be with you.

START ★



1. Baby Moses in bulrushes



2. Flees from Egypt



8. Returns to Egypt



4. Dinner with Jethro



3. Helps girls at well



7. God speaks from burning bush



9. Leads Israelites from Egypt



6. Herds Jethro's sheep



5. Marries Zipporah



10. Manna and quail in the desert



11. Mt. Horeb reunion with family

The First Leader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와 늘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기억하며 아래 퍼즐을
완성해 보세요.

START ★



1. Baby Moses in
bulrushes



2. Flees from Egypt



8. Returns to
Egypt



4. Dinner with
Jethro



3. Helps girls at
well



7. God speaks from
burning bush



9. Leads Israelites
from Egy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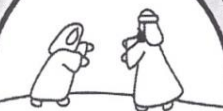
6. Herds Jethro's
sheep



5. Marries
Zipporah



10. Manna and quail
in the desert



11. Mt. Horeb reunion
with family

제 8 공과 하나님의 말씀(십계명)

성경본문: 출애굽기 20:1-26 ; 전도서 12:13-14

요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165)

길디아는 불이 켜진 곳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손을 대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의 마음에 맴돌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방금 겪은 사건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걸어가서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오랫동안 그의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순간에 길디아는 그들이 진을 치고 있던 광야를 가로질러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불빛 속에서 하늘을 가르던 번개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던 산에서 보인 것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어. 우리는 번개를 보고, 천둥과 나팔 소리를 듣고, 연기가 나는 산을 보며 두려웠지. 모세가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는 가능한 산에서 멀리 뒤로 이동했어. 모세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고 있어야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수천 년이 지난 후:

가베는 저녁식사 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이슨이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제이슨이 저에게 왜 너는 다른 아이들처럼 시험칠 때 커닝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커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답을 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는 접시에 담긴 아직 먹지 않은 저녁 식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약간 어리둥절해 하며 가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네가 제이슨에게 잘 말했다고 생각 되는데, 제이슨이 무슨 말을 또 했니?”

“제이슨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십계명을 따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의 하나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그 시대를 위한 것이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 제이슨은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글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이 신약성경에서도 다시 나오는데.”

“십계명 모두요? 신약성경에요?” 가베가 물었습니다.

“넷째 계명을 제외한 모든 계명이 신약에 있지. 십계명의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신 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렸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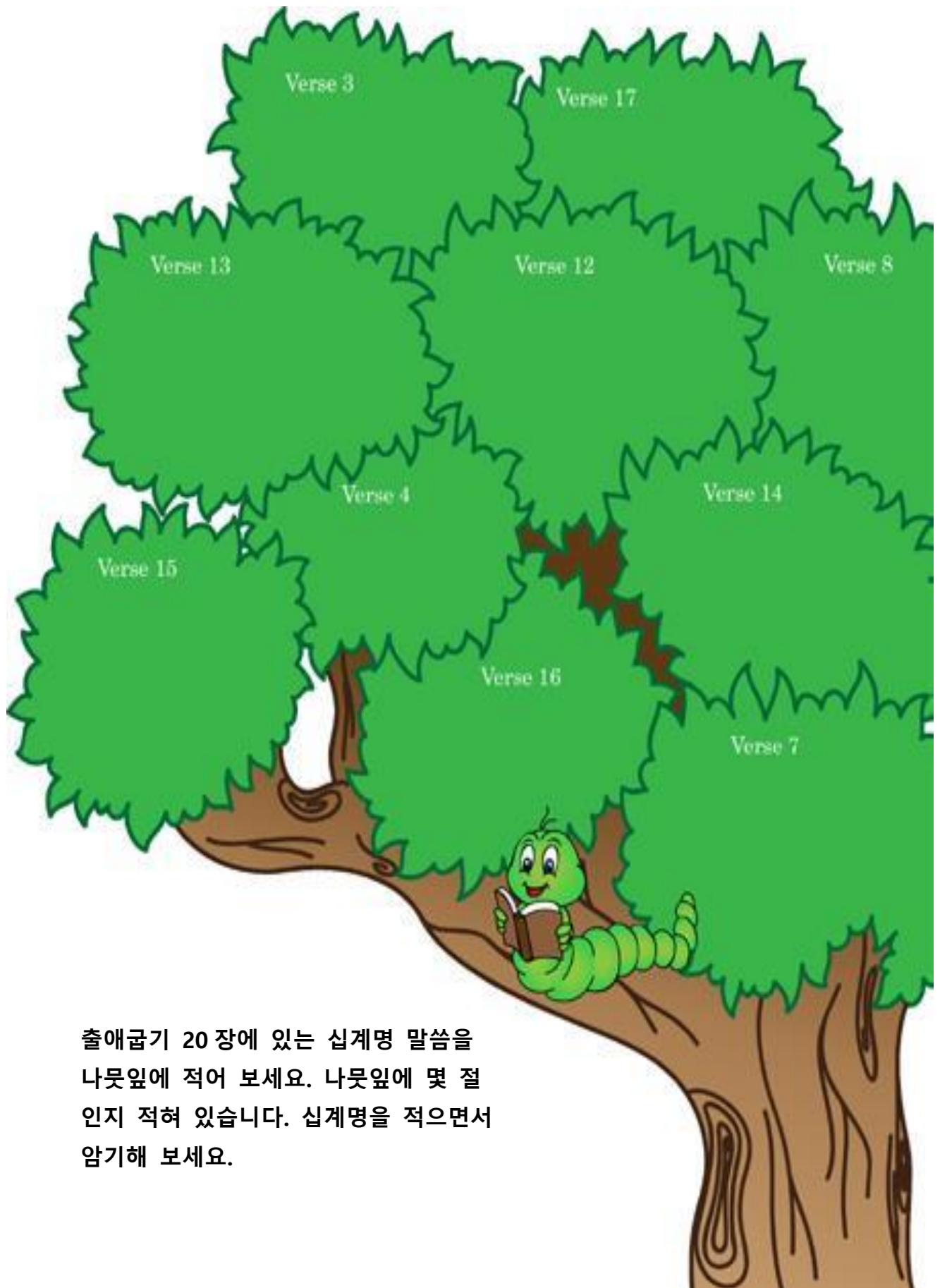
가베는 어떤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는 신약성경에서 십계명을 읽은 기억이 없는데요. 어디에 있죠?”

“신약에 기록된 계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단번에 주었던 율법과는 다르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십계명을 다시 언급하셨어. 마태복음 5 장 17 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한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지.”

가베는 아버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말이죠? 아빠!”

그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아들이.”

가베는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한 다음 포크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빠! 저녁 같이 먹어요. 이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이슨이 다시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 장에 있는 십계명 말씀을
나뭇잎에 적어 보세요. 나뭇잎에 몇 절
인지 적혀 있습니다. 십계명을 적으면서
암기해 보세요.

제 9 공과 하나님을 섬김

성경본문: 출애굽기 28:1-3 ; 히브리서 5:1-10

요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
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히브리서 4:14)

비느하스가 물병을 들고 집으로 달려오면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제가 밖에서 발견한 신기한 돌을 아버지께 보여 드리려고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비느하스는 자기가 발견한 돌을 내밀면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어머니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비느하스, 정말 예쁜 돌을 찾았구나. 아버지께서는 지금 집에 계시지 않는단다. 오늘이 대속제일이니 아니? 아버지는 대제사장으로서는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셨단다. 저녁이 되어야 집에 돌아오실 텐데.”

비느하스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오늘이 대속제일이었죠? 깜빡했어요. 저는 지금 이 돌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한번 돌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집 문밖에 물통을 내려놓고 아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빨리 보여 드리고 싶구나. 엄마가 깨끗한 헝겊을 줄 테니, 네가 찾은 돌을 닦아 현관 선반 위에 두면 어떨까?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볼 수 있게.”

비느하스는 어머니께서 주신 헝겊을 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아버지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엘리후의 아버지는 양을 치는 목자이고, 여후람의 아버지는 곡식을 심고 거두는 농부인데요. 엘리후와 여후람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성전에 자주 계시니 아버지를 보고 싶을 때 볼 수도 없잖아요. 저는 어려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걸요. 왜 아버지는 대제사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 옆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비느하스, 몇 년 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할아버지 아론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야.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기 때문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친히 명령하셨지. 그래서 너의 아버지 엘르아살이 12 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비느하스, 네가 크면 아버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거야.”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린 아들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해가 안 돼요. 대제사장이 여호와와 백성 사이에서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여호와께서 어디에도 서 계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의 어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느하스, 너는 우리 하나님을 네 눈으로 본 적이 없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여호와와는 순결하고 거룩하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단다. 많은 경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한단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해.”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대제사장을 주셨고 그들의 죄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제물을 바치게 하셨어. 그것이 네 아버지의 일이란다. 비느하스, 그리고 언젠가는, 언젠가는 네가 해야 할 일이 될 거야.”

이스라엘 자손의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실제로 비느하스라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렸을 때 이와 같은 질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가 부름을 받은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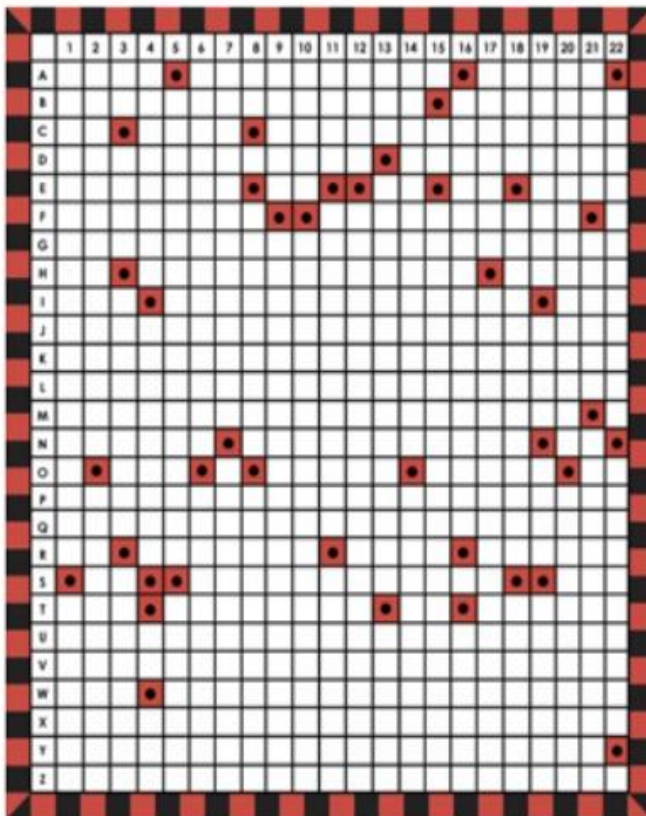
비느하스 시대 이후 여러 해가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린아이로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죄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그분이 드린 제물은 그분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 온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전에 요구되었던 희생과 속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Lesson 9 Activity

PERFECT SACRIFICE!

“



There are twenty-two columns on the graph to the le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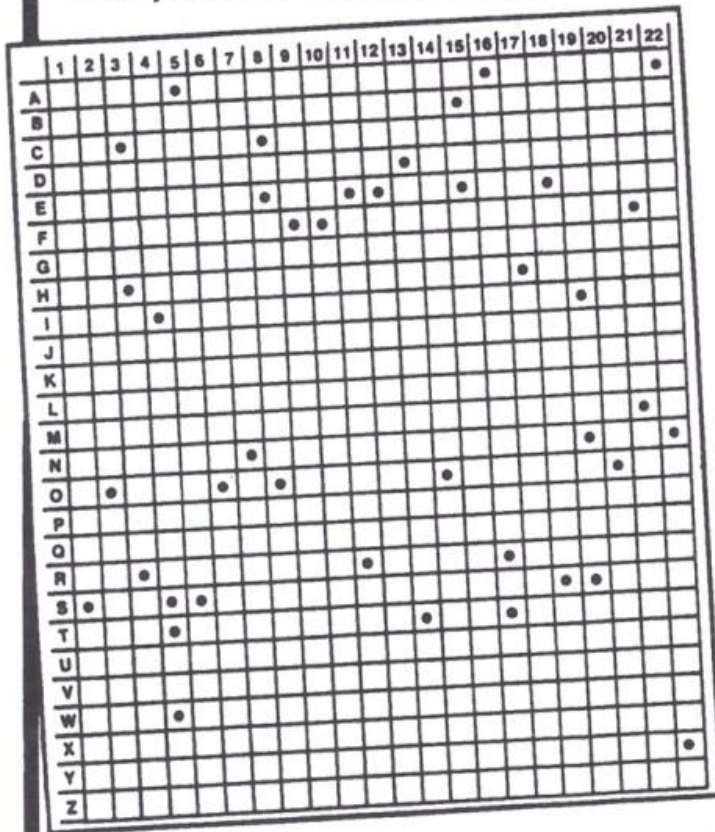
To find the answer to the puzzle, start with column one. Follow the column from top to bottom. When you come to a dot, check to see which letter is on that line and then write that letter on the first blank line below the graph. Continue down the column. Do the same with each column. Then see if you can find the verse in your Bible. If you don't already know how, have your teacher help you.

Where is this verse found?

”

완전한 제물

아래 표에서 1 번부터 22 번까지 표시된 검은 점에 해당하는 영어 철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히브리서 9 장 28 절 말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서로 나눠보세요



So Christ was once
offered to bear the
sins of many.

(Where is this verse found?) Hebrews 9:28

제 10 공과 순종과 겸손의 모습

성경본문: 사무엘상 9:1-2 ; 10:17-26 ; 이사야 1:19 ; 마태복음 18:4

요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태복음 23:12)

노아는 로건이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에게 비꼬듯이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저것 좀 봐. 로건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고 있어. 로건이 쓰레기 수거장 옆에 떨어진 쓰레기까지 정리하잖아. 그럴 필요까지 있니?”

로건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왜? 떨어진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어때서. 노아, 네가 캠프 매니저 부부가 아프시니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자고 제안했잖아. 오늘은 우리가 쓰레기를 정리할 차례인걸.”

노아가 대답했습니다. “쓰레기를 쓰레기 수거장에 넣으면 됐지, 수거함 주위에 떨어진 쓰레기까지 담아서 버려야 하니?”

로건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청소 담당이니깐 깨끗하게 치우면 좋잖아.”

노아는 뒤돌아 가면서 로건에게 말했습니다. “난 쓰레기를 수거장에 갖다 댔으니깐 내가 할 일을 끝난 거 같은데, 그만 갈게.”

그때 30 분 뒤에 호수에 모여 수영할 예정이라는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노아와 그의 친구들은 서둘러 숙소로 갔지만, 로건은 쓰레기 수거장에 남아 쓰레기들을 분리하며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숙소로 가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로건은 집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쓰레기를 정리하지 않을걸. 집에서 안 하는 걸 여기서 왜 저렇게 열심히 한다니?”

노아의 친구 한 명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가 새벽에 샤워하러 샤워장으로 가는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부엌에 로건이 있었어.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 감자를 깎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일찍!”

노아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너는 아침 기상 벨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잖아. 그렇게 일찍 로건이 일어나서 감자를 깎았다는 거야? 로건은 왜 저래?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은가 보지?”

캠프의 모든 일정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금요일 밤 캠프파이어에 모여 마지막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캠프 책임자인 윌슨 선생님께서 시상식을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의 모든 일정이 끝나는 금요일 밤입니다. 캠프 기간 동안 여러분이 성취해야 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

성할 때마다 선생님들은 깃발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캠프 기간 중 깃발을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은 바로 캘리 라이언입니다.” 라이언이 상을 받게 되자 모든 참가자는 손뼉을 치며 환호해 주었습니다.

월슨 선생님께서는 다음 수상자를 발표하기 위해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다음은 캠프 도우미 상입니다. 이 학생은 아침 일찍 일어나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식사 준비를 돕기도 하고, 캠프 순찰을 돌기도 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캠프 매니저 부부가 아프셔서 그들의 일을 여러분들이 도와드려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 상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노아는 몇몇 친구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멋진 제안을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상을 받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슨 선생님은 캠프 도우미 수상자는 로건 마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건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캠프 도우미 수상자라고! 캠프 매니저를 도와드리기 위해 조를 짜서 일을 나눠서 하자는 안은 노아가 낸 것인데!’ 로건은 캠프 도우미상은 자신이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낸 노아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주위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캠프의 모든 참가자는 로건이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에서 야채 다듬는 일을 했고, 쓰레기 정리를 깨끗이 했으며 캠프 순찰도 꾸준히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로건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캠프 예배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해 배웠습니다. 로건 또한 이 두 가지 자격을 갖춘 학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수행하는 겸손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로건이 올해의 캠프 우승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상패를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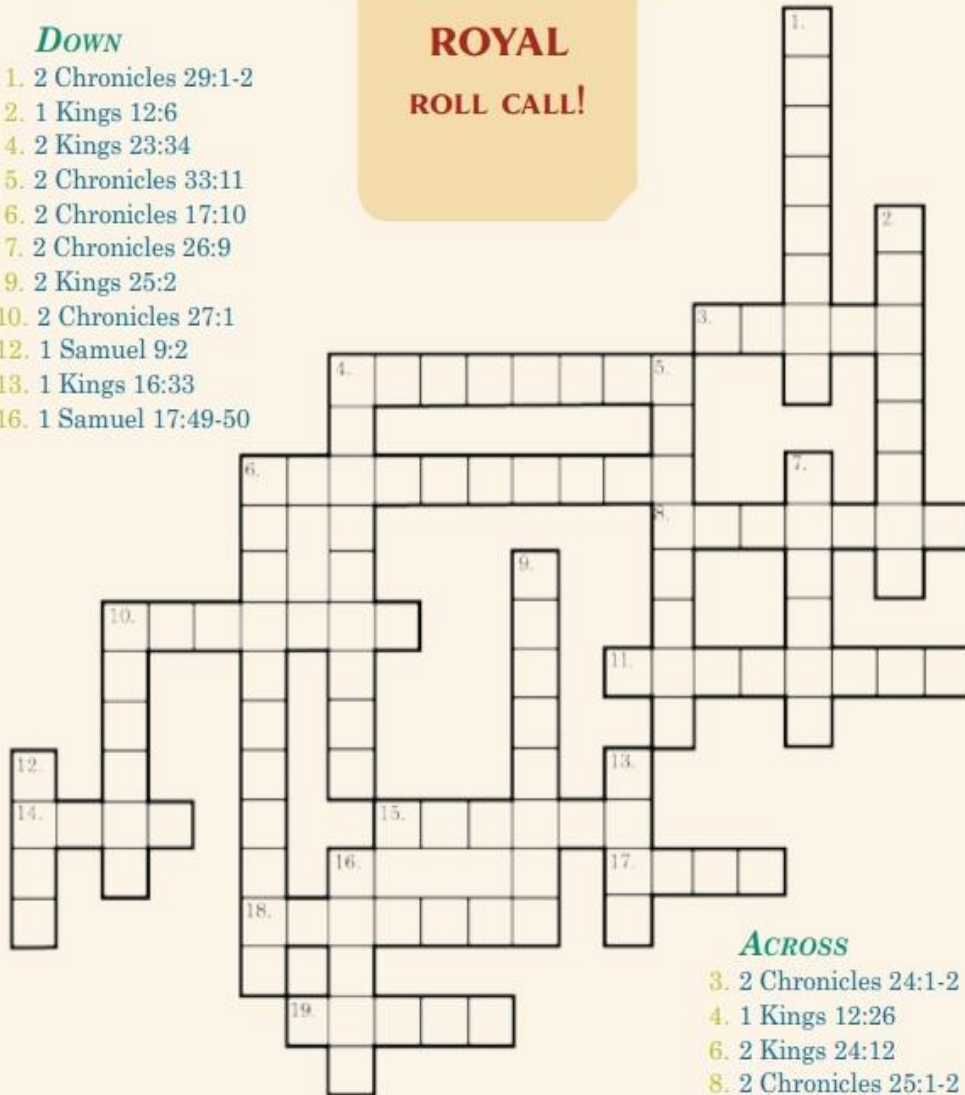
로건은 월슨 선생님이 주시는 상을 받았습니다. 월슨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로건, 정말 잘했어요. 모든 일을 잘해 주어서 감사해요.”

Lesson 10 Activity

DOWN

1. 2 Chronicles 29:1-2
2. 1 Kings 12:6
4. 2 Kings 23:34
5. 2 Chronicles 33:11
6. 2 Chronicles 17:10
7. 2 Chronicles 26:9
9. 2 Kings 25:2
10. 2 Chronicles 27:1
12. 1 Samuel 9:2
13. 1 Kings 16:33
16. 1 Samuel 17:49-50

ROYAL ROLL CALL!



ACROSS

3. 2 Chronicles 24:1-2
4. 1 Kings 12:26
6. 2 Kings 24:12
8. 2 Chronicles 25:1-2
10. 2 Chronicles 21:4
11. 2 Kings 23:31
14. 2 Chronicles 28:24-25
15. 2 Chronicles 35:23
17. 1 Kings 16:33
18. 2 Chronicles 22:1
19. 1 Kings 1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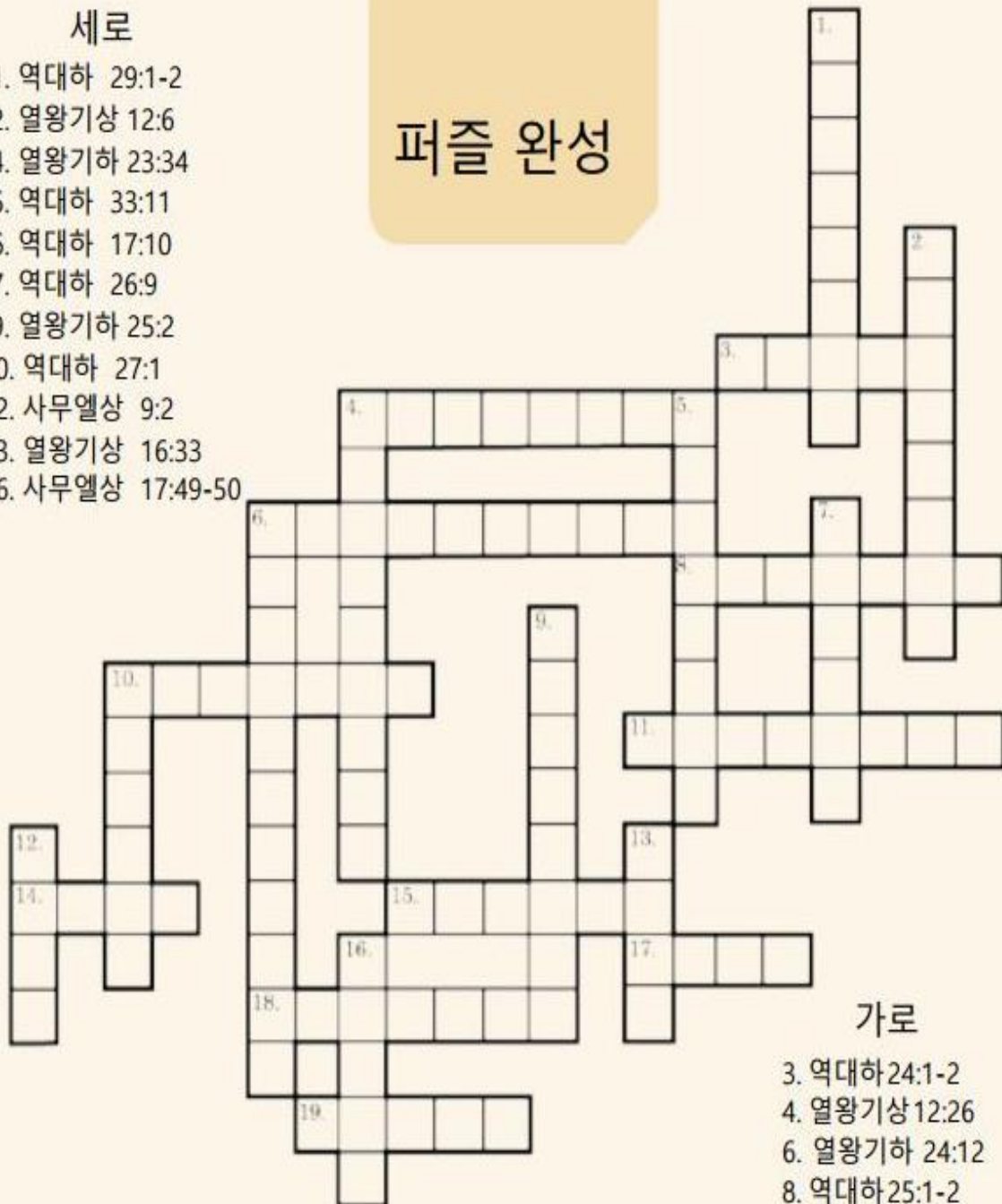
Saul was the first king of God's people.
Complete the crossword puzzle above
to find Saul's name and 19 other
kings' names in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The First King

퍼즐 완성

세로

1. 역대하 29:1-2
2. 열왕기상 12:6
4. 열왕기하 23:34
5. 역대하 33:11
6. 역대하 17:10
7. 역대하 26:9
9. 열왕기하 25:2
10. 역대하 27:1
12. 사무엘상 9:2
13. 열왕기상 16:33
16. 사무엘상 17:49-50



가로

3. 역대하 24:1-2
4. 열왕기상 12:26
6. 열왕기하 24:12
8. 역대하 25:1-2
10. 역대하 21:4
11. 열왕기하 23:31
14. 역대하 28:24-25
15. 역대하 35:23
17. 열왕기상 16:33
18. 역대하 22:1
19. 열왕기상 16:20

이스라엘 왕 19명의 이름을 구약성경을 활용하여 영어로 찾아보세요.

제 11 공과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예물

성경본문: 말라기 3:8-12 ; 마태복음 25:35-40 ; 누가복음 21:1-4

요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사도행전 20:35)

잭슨과 올리버는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잭슨이 말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우리 스타벅스에서 핫초코 먹고 집에 가자.”

올리버가 당황한 표정으로 잭슨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 나는 이번 주 용돈을 다 썼는 걸. 너는 늘 돈이 있는 것 같아. 너는 나랑 같은 용돈을 받고 심지어 교회에 용돈을 조금 낸다고 했잖아.”

잭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리버, 교회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믿어. 용돈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십 분의 일을 주님께 드리는 거야.”

올리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니?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잭슨이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십일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셨어. 나는 돈이 늘 부족하지 않았거든.”

올리버는 그의 머리를 흔들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자기의 돈을 포기하면서 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니?”

잭슨이 말했습니다. “올리버, 나는 내 돈을 포기하거나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나는 그 중에서 십 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십일조는 우리가 번 돈의 십 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십일조를 돈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물건의 십 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땅의 소출의 처음 열매와 곡식, 가축들에서도 십 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7 장 32 절 말씀입니다.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와 성물이 되리라”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와 헌금은 교회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십일조를 해야지 생각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젊은 부부에 대한 실화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늘 생활할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

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달 월급에서 십 분의 일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남은 돈에서 청구서에 있는 비용들을 지불해야 하지만,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청구서 비용들을 지불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교회를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에서 부자들은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재산 중에서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녀는 적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누가복음 21:3)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물질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건강과 재능과 능력, 시간 등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입의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루 24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24 시간 속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24 시간 중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 장 7 절 말씀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책슨의 이야기에서 책슨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Lesson 11 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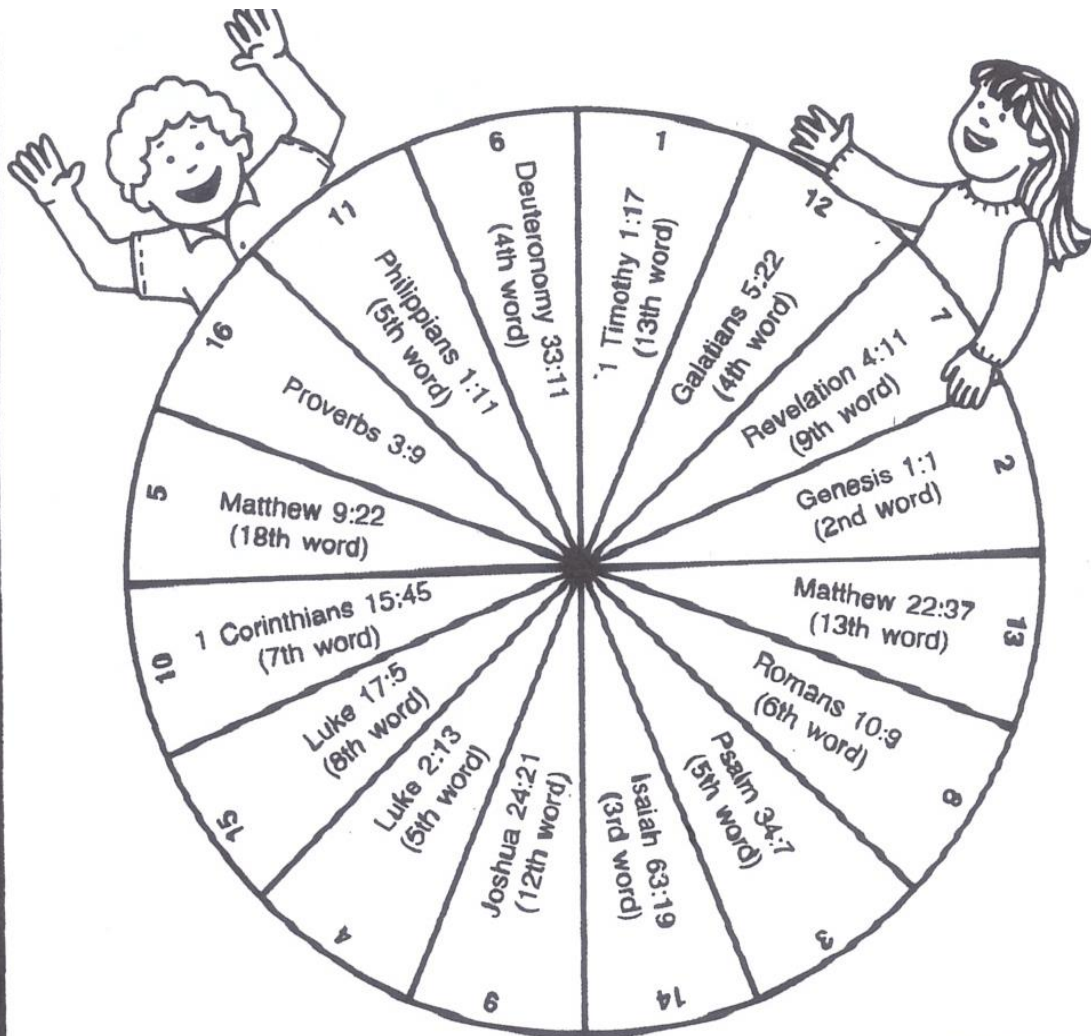
GIVING TO GOD!



Starting with number one, write on the lines below, each word according to the clue given. Go through all 16 clues. When you have finished you will have a verse that agrees with today's lesson.

하나님께 드려요

1 부터 16 까지 단어를 찾아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성경은 영어 KJV 버전을 사용하세요.



Answer: Honour the Lord with thy
substance and with the first fruits
of all thine increase. Proverbs 3:9

제 12 공과 먼저 감사하기

성경본문: 시편 103:1-22

요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시편 107:1)

추수 감사절 하루 전날입니다. 집 안은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아바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장식품을 바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바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식탁에 과일이랑 채소가 있네요?”

어머니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추수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식탁을 장식하고 있는 거란다.”

아바가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호박이랑 피망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아니, 아바, 나는 우리가 이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만 감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던단다. 식탁에 장식된 것을 보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거였어. 예를 들면 집과 가족, 건강, 공기, 자연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잖니.”

아바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바를 위해 행하신 일 중 그녀가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축복해 주신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당신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 집, 친구, 교회, 당신에게 중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친한 친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을 때, 그 선물을 고르거나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가 여러분이 준비한 선물을 받고 좋아하고 기뻐하길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구가 선물을 보자마자 좋아하지도 않고, 감사해하지도 않는다면 어떨까요? 선물을 준비한 여러분 또한 실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주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람들이 그 분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을 내어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식사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음식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7 장 성경 말씀에서 나병이라는 끔찍한 질병을 앓고 있는 10 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도시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은 전염병이고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그들의 동네로 가다가 나병환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주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서 걸어 가자, 그들의 몸은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10 명 중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10 명이 치료되었는데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는데도 그분께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시간을 내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축복을 더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 년 중 추수감사절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올 때만 그 분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매일 매일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Lesson 12 Activity

**THANKS
TO GOD!**

Read the verse on the balloon,
then find all its words in the word-
find (the verse is from Psalm 6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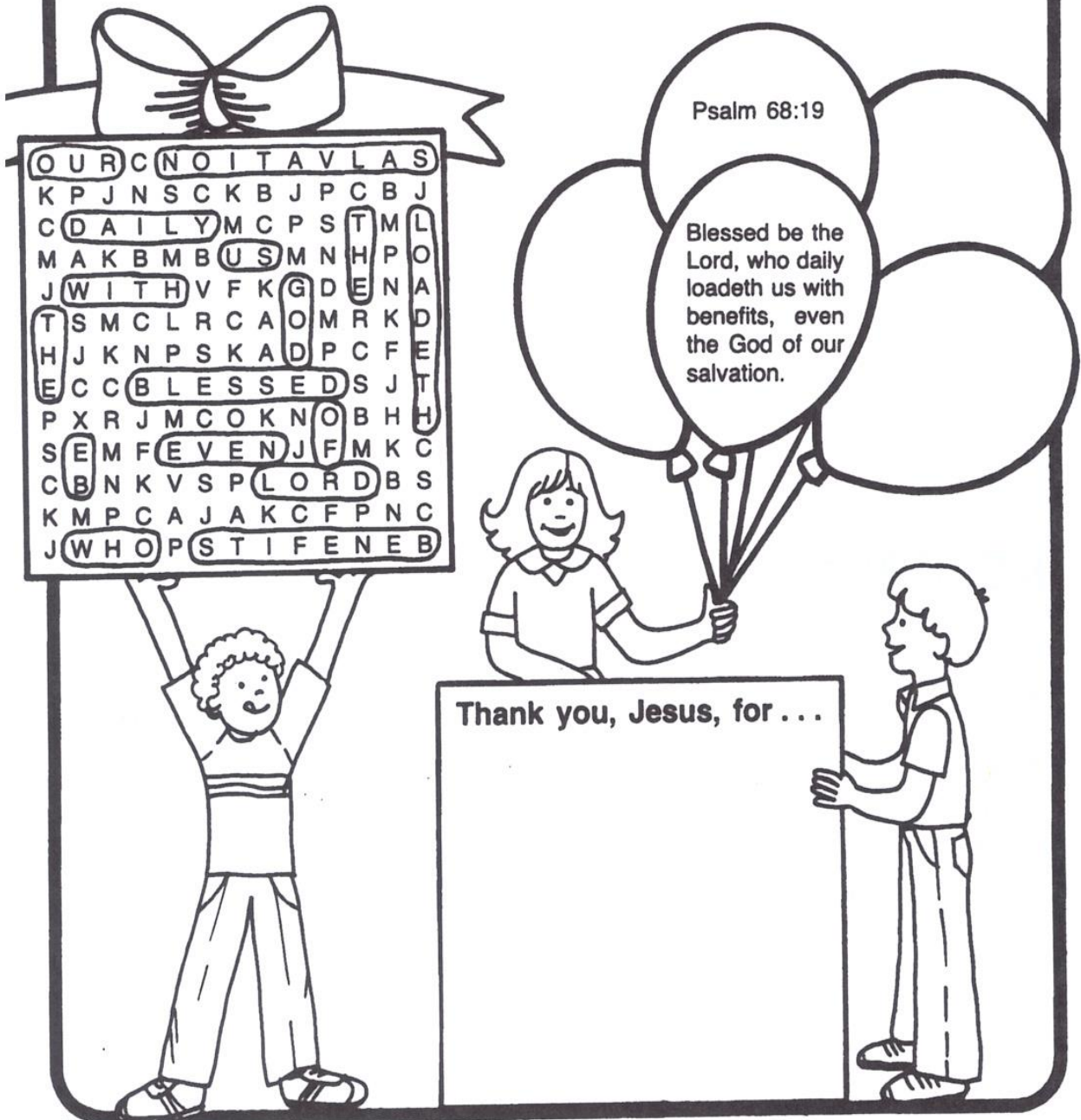
What are some of the benefits with
which the Lord has “loaded” you
today? List or draw a picture of
them in the
other balloons
or white space
on this page. It
always feels
good to thank
Jesus for His
blessings.
Have you
thanked Him
today?



OURCNOITAVLAS
KPJNSCKBJPCBJ
CDAILYMCPSTML
MAKBMBUSMNHPO
JWITHTVFKGDENA
TSMCLRCOMRKD
HJKNP SKADPCFE
ECCBLESS EDSJT
PX RJMCKNOBH
SEMFEVENJFMKC
CBNKVSPLORDBS
KMPCAJAKCFPNC
JWHOPSTIFENEB

하나님께 감사하라

풍선에 적힌 시편 68 편 19 절 말씀의 단어를 왼쪽 단어장에서 찾아보고 감사한 것들을 서로 나눠보세요



제 13 공과 1 분기 복습

성경본문: 각 공과 본문 참조

요절: 제일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골라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첫 번째 생일을 기억하나요? 첫 번째 이가 빠진 날을 기억하나요? 제일 처음 걸었던 날을 기억하나요? 이러한 사건들은 아주 어릴 때 겪은 일이라 정확한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은 어떤가요?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은 어떤가요?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를 기억하나요? 아니면 어머니를 통해 처음 일어났던 일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사진 앨범은 카메라의 눈을 통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그림 기록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공과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첫 번째’ 사건들을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성경 내용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서로 나눠 보세요.

H

OW WAS THE FIRST
written law given?

WHAT WERE THE BUILDERS OF
BABEL DOING?

W

HY SHOULD WE GIVE TO GOD FIRST?

Of what tribe
was the first
king?

Why did Noah escape the Flood and destruction?

WHAT WAS
THE FIRST
LEADER'S JOB?

WHO CREATED THE EARTH?

WHO WAS THE
FIRST MAN?

WHY IS IT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What was
the first tempta-
tion?

퀴즈 맞추기

여러분은 1 권 공과 내용을 잘 배우고 익혔나요? 아래 질문에 답을 찾아보세요.

Why should we give to God first?

A tenth of all we receive belongs to God.

What was the first temptation?

To eat from the tree of knowledge

How was the first written law given?

God wrote it on stone

Name some blessings that Abraham received because he believed and obeyed God.

Land, Children, Long Life

What were the builders of Babel doing?

Trying to make a name for themselves

Why did Noah escape the Flood and destruction?

He was righteous

What was Aaron's job?

High Priest

Who was the first man?

Adam

What was the first leader's job?

To lead God's people from Egypt.

Who created the earth?

God

Of what tribe was the first king?

Benjamin